



봉우 컬럼

상처 덧날라!

지난 주 나는 금식을 하면서 영상을 편집했다. 이를 안 직원들이 내게 왜 금식하느냐고 걱정스레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속이 거북해. 위가 힘들고 아프다고 해서 좀 쉬게 하려고. 위가 아프다는데 자꾸 밥을 넣어서 건드리면 더 아프지. 좀 쉬게 하는 게 최선이야.”라고 말해줬다.

이건 진리다. 상처가 난 곳을 자꾸 건드리면 상처가 덧나고 낫질 않는다.

아내들이 가끔 하는 실수가 이것이다.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의 과거 잘못을 자꾸 꺼내는 것 말이다. 또 애들에게도 “너,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훈육을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반발만 하게 되고, 남편은 “또 그 얘기야?” 하며 버럭 화를 내며 방을 박차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이제 좀 나를 만한테 다시 상처를 후비는 격이기 때문이다. 아픈 부분을 자꾸 건드리니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다.

용서는 서류 보관하듯 잘못을 한 곳에 차곡차곡 쟁겨놓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온전히 잊어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내가 너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히8:12). 왜 하나님이 죄 지은 자를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겠는가. 용서한 것은 잊었기에 처음 용서하듯 하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승인 자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너 그럴 수 있냐? 너를 수제자라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지.”라고 혼내지 않으셨다. 그저 물고기를 구워 먹이고, “너, 나 사랑하지?” 하고 물으셨을 뿐이다.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다. 좋은 옷과 반지를 끼우며 그저 감싸기만 했다. 그렇다. 상처는 감싸줘야 낫는다. 약을 바르고 거즈로, 밴드로 싸줘야 낫는다. 본시 상처 받은 사람이 제일 아픈 법이니 굳이 후벼 파지 말아야 한다.

남의 아픈 과거,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지 마라. 괜히 사랑인척 자꾸 만지지도 마라. 아예 잊어주고 보듬어줘라. 상처에 덧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지난 2013년 부천실내체육관에서 처음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시작한 때에 비하면 지금은 가히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만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한반도에 금방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기를 조성하던 때가 불과 1년 전까지의 상황이다. 그동안 부천, 잠실, 서울시청 광장, 대구, 잠실올림픽공원, 용산 전쟁기념관 등 우리가 9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꼭 4년이다. 그리고 5년째 되는 2018년 올해 벽두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뉴스영상을 통해 목도한 장면들을 상기해보는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나타나고 있는 결과라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는 우리가 기도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주 명쾌하게 답을 내리셨다.

“나는 죄도 우도 아닙니다. 여도 야도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역사는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실컷 해놓고 믿지 못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처음 부천에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산이나 들이나 어디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의 기류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허락하신 다시없는 기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좌우를 떠나, 여야를 떠나 이 일에 힘을 모아서 북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우리의 영원인 평화통일의 대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내가 왜 그날의 영상을 다시 보여주는 줄 압니까? 그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일한 목표와 소원을 두고 기도해놓고 부정적인 언사를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했던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부정적인 언사로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통일된 대한민국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저 평양



우리는 이날 이 장소에서 함께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2017년 10월 2일, 서울시청광장, 제9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일각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북한의 평화제스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넘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언사들로 오늘의 역사를 부정하려 한다. 클린턴 정부하에 진행되었던 제네바 회담이나 6자 회담 등의 수많은 약속들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기에 이른 마당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심이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를 시작한 이래 5년 만에

강국으로 성장한 이 나라가 다시는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을 드렸습니다. 전쟁은 우리 젊은 세대의 모든 희망을 짓밟는 재앙임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군 시절 특수부대에 차출되어 날마다 ‘국가를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를 외치며 훈련을 받았고, 내 동기들이 월남전에서 전사한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나는 전쟁이 싫습니다. 나의 소원은 이 땅에 피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최대의 유산이라 여겼습니다. 오늘날 이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는 평화

의 김일성광장을 평화의 광장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그날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권력자나 나라나 정부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모세가 가나안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누가 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기 바란다. 여호수아, 갈렙이 될 것인지, 원망과 공포로 악평하던 10명이 될 것인지 말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7:9~13)

인생사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여러분, 제가 인생 70년, 목회 34년 동안 터득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사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보응을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배추를 심고 무를 거두는 것을 못 보았고, 장미를 심었는데 국화가 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딱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7:16). 그러니 어떤 것을 심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다보면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힘에 겹게 도와줬는데,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뒤통수 칠 때 참 패심하고 화가 치밀습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었는데 어느 날 목욕탕에서 마주치자 제게 이단이라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제자들 중에서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헐박을 하며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되었을까요? 그들이 잘 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17:13)고 말씀하셨거든요.

콩심는데 콩나고 팥심는데 팥난다

다윗에게는 충신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37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우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그를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은 경우입니다. 그 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이 회개하여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치 오차도 없이 다윗에게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같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삼하12:10~11)고 하였고, 실제로 다윗의 집에는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다. 자녀들의 골육상쟁이 이어졌고, 아들 암살범의 반역 등으로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은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있

습니다. 사울에게 입니다. 사울이 골리앗으로 인해 고민할 때 어린 다윗이 나가 골리앗을 물리쳐주었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신을 쫓아주기도 했는데, 사울은 은혜를 갚기는 고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요? 그런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요. 결국 사울은 그의 아들과 함께 비명횡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또 한 사례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을 위해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 품으로 들여보냅니다. 아브라

함의 씨를 받기 위해 서입니다. 어찌 그 마음이 즐거웠겠습니까만 선한 마음으로 사자가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몸종 하갈이 아들을 하나 낳더니만 엉덩이에 빨이 나서 주인마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인행세를 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이 안 좋은 법, 결국 하갈은 아들과 함께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보다 조금 먼저 하늘나라로 간 박진수 목사의 아들 결혼식에서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취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부부의 가훈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야 결국이 좋고 자손손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 그래야 하고요.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말아야 하는데 (롬12:17), 하물며 선을 악으로 갚고서 어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벧전3:9)고 했고, 바울 사도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

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롬12:17)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롬12:20)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5:43~44)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롬12:21).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지나 마침내 위상은 높아

가 되었을 때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형들에게 보복할 수도, 또 그런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자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되레 형들 덕분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창45:8). 또한 세월이 흘러 아버지 야곱이 죽자 흑시라도 요셉이 악을 갚겠다고 할까봐 형제들이 불안해할 때에 요셉은 다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 너희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너희들은 두려워 마소서" (창50:19~21). 당신들은 악을 베풀었으나 나는 악을 선으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하다 그걸 실패하자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을 때도 보디발의 은혜를 잊지 않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함구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삶을 배워

야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은 은혜를 알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부모를 길에 버리고, 양로원에 버리는 자,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여 대적하는 자는 다 개, 돼지 같은 놈입니다. 은혜를 잊기에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10:2). 의리가 있으면 배신과 반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죄를 기억치 않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도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눅6:35)고 말씀하시고 이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눅6:36).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더는 원수를 일흔 번에 일곱 번까지 용서하며, 그가 주리면 먹이고 혈벗으면 입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죄인 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에 빚진 자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 늘 애쓰고 있습니다. 저를 욕하고 떠난 제자들이 돌아오면 절대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받아주고 다시 기회를 줍니다. 용서란 과거를 다 잊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히8:12). 제 인생에 마지막 날이 온다면 저는 저에게 물을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네 잘못을 회개하고 네게 죄지은 자를 용서했나?"고 말입니다. 저는 '그리했노라'고 자신 있게 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진심으로 죄지은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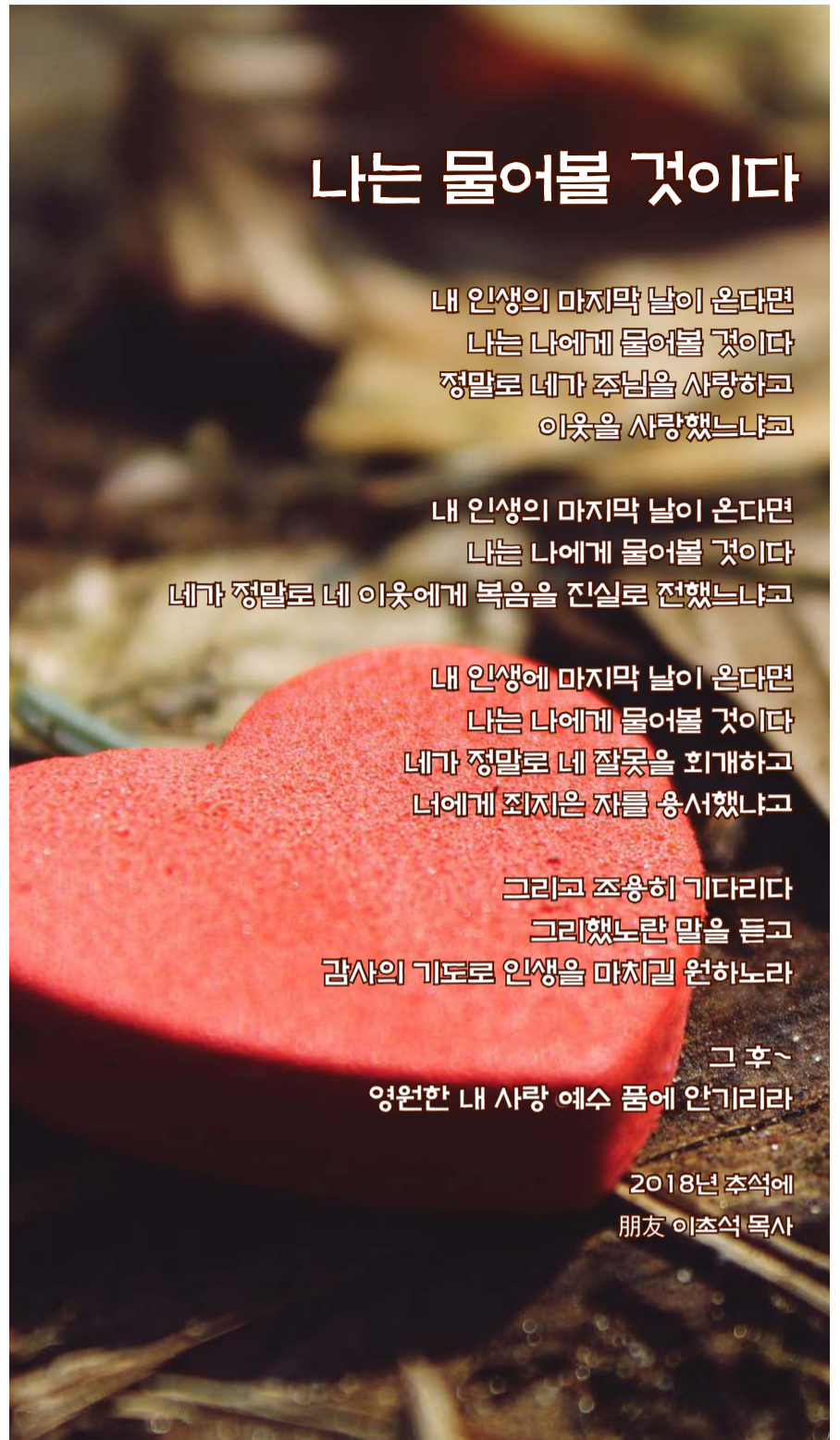
:: 객원칼럼 ::

투자과 시장변동

주식시장은 늘 변동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러한 시장변동을 환영해야 합니다. 가격과 가치의 괴리를 이용해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주가가 낮은 시점에 매수하고 높은 시점에 매도하려는 시점선택을 함부로 시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이 고점이나 저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급하게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투자자는 기업의 동반자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매일 주가를 알고 싶어 하거나 새로운 동업자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식은 시장흐름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지요. '시점선택(timing)'은 주가가 낮은 시점에 매수해서, 주가가 높은 시점에 매도하려는 시도입니다. 반면 '가격선택(pricing)'은 주식을 적정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적정수준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려는 시도입니다. 단 기간에 돈을 벌려는 투기꾼은 시점선택을 하지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투자자는 가격선택을 합니다. 일반 대중이 시장을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일 것입니다. 보유주식의 시가평가액은 끊임없이 오르내립니다. 시장은 투자자에게 보유주식을 매매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가흐름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갑자기 매매충동에 굴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주가흐름을 모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주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때가 아니면 주가흐름을 무시하고, 기업의 영업실적과 배당에 주목할 것입니다.

다. 투자자와 투기꾼의 실제적인 차이는 주가흐름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투기꾼은 주가흐름을 예측해서 이익을 얻으려 하나, 투자자는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려고 합니다. 투자자가 주가흐름을 중시하는 것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할 기회와 비싼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번갈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건전하게 구성된 주식 포트폴리오라 해도 시가평가액이 오르내리는 법이므로, 급락해도 걱정하지 말고 급등해도 흥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가변동을 이용해도 좋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급등 직후에는 절대로 매수하지 말고, 급락 직후에는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는 격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은혜가 충만하여 뜨거울 때는 주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지만 막상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지면 때로는 쉽게 낙담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채우고서야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요2:7-9), 우리의 기도통장을 채워 때가 찬 시기가 되면 주님께서 결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겠지요. 목사님께서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적금 붓듯 날마다 열심히 기도통장을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lmkwdf@hotmail.com



나는 물어볼 것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정말로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네가 정말로 네 이웃에게 복음을 진실로 전했느냐고

내 인생에 마지막 날이 온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이다
네가 정말로 네 잘못을 회개하고
너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했느냐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다
그리했노란 말을 듣고
감사의 기도로 인생을 마치길 원하노라

그 후~
영원한 내 사랑 예수 품에 안기리라

2018년 추석에
朋友 이초석 목사

:: 진리의 학당 ::

인자의 뜻을 위하여 (창세기 1:2)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하신 분이므로 영광이 충만하시다. 어떤 아쉬움도 부족함도 없는 분이시지만 아들을 후사, 곧 상속자로 세우실 때는 그를 위하여 하늘 영계를 창조하셨으니 아들의 보좌요, 아버지의 품속과 같이 생명권세가 무궁한 나라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히1:2). 아들은 지금부터 2천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몸으로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막16:19, 히8:1). 그곳은 천사들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과 영광으로 충만하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하여 그곳에 들어가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부활할 때 영이 몸이 되어 이 흑암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것이라고(전15:42~54). 이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를 따라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

나며 많은 역사가 있다. 하늘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 창조한 곳인데 그 하늘에 아들을 수종들어야 할 천사들 중에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 범죄한 천사는 형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고(마25:41) 천사를 형벌할 장소로서 하나님은 영계와 상반된 물질계를 만드셨다(계20:10). 이를 흑암이라고 한다(유1:6). 흑암을 싸고 있는 수면은 하나님의 신, 곧 바람과 같은 존재인 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결박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고 있다(유6). 흑암에는 빛이 없다. 즉 영광이 없다. 그 흑암이 충만한 곳에 다만 물과 흙이 반죽이 되어 진흙탕과 같고 검으며, 거기에는 생명도 없으니 공허하다. 진리가 없으니 거짓만 충만한 곳이다. 이 흑암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마귀가 이미 갇혀 있다.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권세자(골1:3), 어둠의 주관자(엡6:12)라고 성경은 말한다. 창세기 1장 2절은 6일 창조 이전 상태를 말하고 있다.

6일 창조는 인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아주시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우주로 생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인자로서 하늘에 들어가리라 고 하는 뜻을 정하셨을 때, 그 인자가 흑암 가운데에서 출생과 죽음을 맛보려하신 것이다. 우주에서 태어난 물질인 육체는 결코 우주를 초월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존재로 만드시고 인자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시고(롬5:14), 우리는 영적존재로서 예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 얻은 자를 하늘로 불러들이시려고 성령을 보내셔서 천국사람으로 기르신다. 이 모든 일이 그 더러운 속성으로 유혹하는 음부의 권세자 마귀를 굴복시키는 인자의 겸손과 순종의 영감으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부활하여 하늘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흑암에 살고 있어도 믿음의 힘으로 영광의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마귀는 휴식 없이 거짓과 사망으로 믿음을 부정하려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흑암에 속한 사람인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후6:14~18).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가 흑암의 수면을 초월해서 영계에 들어갈 길을 내셨다. 인간은 거듭나야 하늘 나라에 갈 수 있다(요3:3~6). 거듭나는 것은 흑암의 지배자가 나의 옷자락도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생활도 거듭나고 인격도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곳에 와서는 죽임을 당하셨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죽음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로써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으니 우리 또한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흑암의 세력자는 이미 패배했다. 영으로 나면 다시 바알세불에게 절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박멸하는 권세를 힘입는다.

박덕규 목사

8년 된 고질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예수중심교회를 30년간 다녔습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했지만 특별한 간증거리가 제겐 없었습니다. 늘 목사님 설교에 말씀하시는 '씨앗 하나가 바위에 떨어져 썩어 낫다가 습기가 없는 고로 곧 말라 없어지는 것' 같이 제 신앙도 늘한 귀로 듣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저에게 8년 전부터 생각지도 못한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왼손 가운데 손가락 손톱 옆에 아주 작은 고름이 생겼다 벗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고름이 점점 커지다 벗겨지기를 무한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반복되더니 이번에는 검지 손톱 주변에도 고름이 생기더니 같이 벗겨지고, 또 몇 달 지나 엄지손가락에까지 번지더니 세 손가락에 고름이 생겼다 벗겨지고 아물기도 전에 고름이 생겼다 벗겨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이렇게보니 나의 삶은 서서히 엉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물에 닿으면 쓰리고 아파서 손에 물을 묻힐 수도 없었습니다. 요리하

기, 청소하기 등 모든 삶이 어려워졌고 마음까지도 병들어갔습니다. 유명하다는 대학병원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약을 처방받아 먹어봤고, 의사 왈 '나중엔 손톱도 빠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처방받은 피부과약을 두 달 동안 먹던 중 부작용으로 얼굴이 예민해지고 뒤집어져서 2년 동안 스킨로션조차도 바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방 쪽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70만원이 넘는 한약을 경제적인 부담감에 계속 먹을 수는 없었고 전혀 효과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병원이 서울삼성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스테로이드약 밖에 없고 이 약은 부작용이 심하다면서 스테로이드연고를 처방해주었습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나를 거라는 마음으로 발랐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을 꾸준히 발라봤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보니 7, 8년이 흘렀고 이전 한 몸이 된 것처럼 무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 살 껍질이 벗겨지다보니 조금만 지나면 뼈가 드러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던 2018년 7월 15일, 목사님이 주일에 '기도는 생명선이다'란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중 목사님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면서 구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질병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하며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이날 바로 손가락 고침을 받기 위하여 40일 작정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행함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며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에게도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고침 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두드렸습니다. 작정기도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나면서 나의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는 하루하루 고통 속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대학병원에서 모든 검진을 받아봤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정진과를 가보라고 했습니다. 우울증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정신과약을 먹은 이후 밤낮으로 잠에 취해 있었고,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져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작정기도를 시작한 후 피곤함이 서서히 물러가더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무도 몸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40일 작정기도가 끝나고 주일에 이초석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나서 "간증해, 간증해."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수를 받은 후 너무도 기뻐합니다. "나, 고침 받았다."고 동네방네 큰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이 나오면 제일 먼저 맨손으로 뭍고 싶었습니다. 고쳤다는 믿음으로 집에 와서 맨손으로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고쳐져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시 손가락에 여기저기 노랗게 고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는 믿음에 입술로 범죈치 않기 위해 '지금 이것은 허상이고 실상은 깨끗이 고침 받았다'고 시인하며 여기저기 고침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8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병과 우울증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해주셨습니다. 이 질병을 통해 기도의 첫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매 순간 감사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를 통해 나타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묵묵히 지켜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힘든 걸 같이 이겨내 준 저의 남편, 그리고 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의왕교구 김영숙 집사

Good News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대표적인 시인 테니슨은 천지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주옥같은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한 당대 최고의 시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굴에 가득한 미소를 머금고 행복한 표정으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나보죠?" 테니슨이 묻자 농부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직 한 가지 소식밖에는 모릅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테니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 소식은 오래되었지만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며 정말로 좋은 소식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며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상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

가 되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내 인생 최고의 날

:: 간중 ::



살롱~
 9월 26일 수요일에 참석한 김양원 집사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YouTube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성령의 역사' 동영상 보게 되었습니다. 보는 동안에 심장이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헛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면서 사랑하는 자녀, 부모형제, 자매 등 가까운 지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밤 2시까지 성령의 역사 동영상 1~14편을 보고 나서 카톡으로 지인 40여명한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동생에게 보내고, 날이 새자 부모님한테 이초석 목사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영접 안하면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강력하게 전도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딸하고 여동생이 저한테 미쳤다며 '그런 거 추종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미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제가 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인들에게도 카톡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필코 전도하

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하겠다는 굳센 믿음으로 제 마음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자 이초석 목사님을 꼭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9월 26일 수요일에 설교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시는 목사님을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주면서 방송실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안수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동영상에서 설교하시는 모습과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인자하시고 파워풀하시고 목사님한테 매료되었습니다. 제 생애에 이런 기쁨은 처음인 거 같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함께 하는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김양원 집사



무뎠던 철 연장 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만이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전도서 10장 10절)

지혜가 무엇일까?
 뉘고 좃고
 기름치는 것 아닐까?